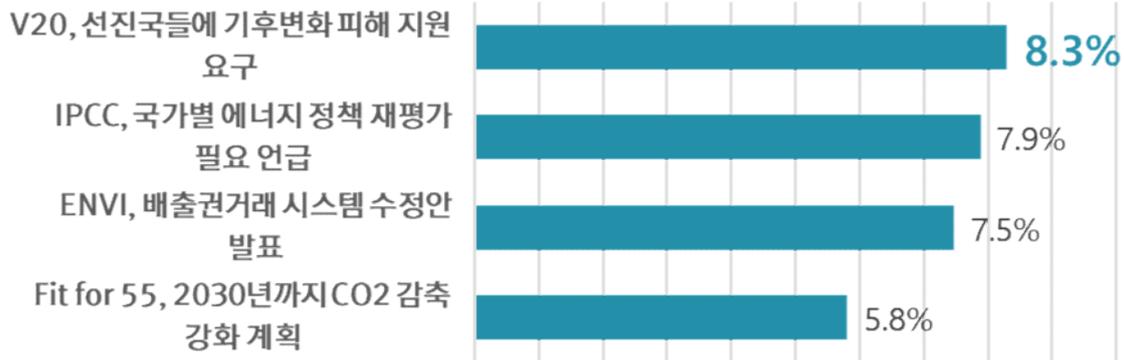


V20, 선진국들에 기후변화 피해 지원 요구

글로벌, 기후대기 관련 주요 이슈 (2022. 02 ~ 2022. 09) ※ 총 2,721건 키워드 분석 결과



- 기후변화 취약국들의 협력체인 V20(Vulnerable Twenty Group)은 현재의 개발도상국 지원 국제 금융 시스템은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에 적합하지 않음을 피력함. 이들은 전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사태에서 비롯한 불안정한 경제 상황,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겪고 있는 피해 상황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G7, G20, 그리고 IMF의 보다 공정한 금융 지원 시스템 채택을 촉구함
- 기후 변화 및 에너지 위기 사태로 인해 심각한 피해 상황 및 손실을 겪고 있는 V20의 회원국들은 G20 선진국들이 전세계 온실가스의 약 80%를 배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개발도상국 및 빈곤국가에 집중되고 있음을 피력하며 부유한 국가들이 기후위기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함
- 독일 정부는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의 손실 및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G7 국가들의 인식 제고를 이끌기 위해 UN 기후 정상 회담에 앞서 가장 높은 금액의 기후자금 공여를 약속함. 예니퍼 모르간(Jennifer Morgan) 독일 기후특사는 V20 국가들과 독일 정부가 합의한 “글로벌 쉴드(Global Shield)”는 일종의 보험 형태의 자금 지원 펀드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피해 발생 즉시’ 지원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음

V20, 기후변화 피해 관련 주요 이슈

• 2022. 04. 26.

V20 기후위기 취약국 협력체, 보다 공정한 국제금융 필요성 피력

2015년에 결성되어 55개국 14억 인구를 대변하는 기후변화 취약국들의 협력체인 V20(Vulnerable Twenty Group)은 세계은행과 IMF의 2022년 봄 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현재의 개발도상국 지원 국제 금융 시스템은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에 적합하지 않음을 피력함. 이들은 전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사태에서 비롯한 불안정한 경제 상황,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겪고 있는 피해 상황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G7, G20, 그리고 IMF의 보다 공정한 금융 지원 시스템 채택을 촉구하고 나섬. 참고로, V20은 IMF가 취약국 지원을 위해 신설한 회복지속가능성기금(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Trust)에는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구조조정 조건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취했음

자료: Brettonwoods Project (brettonwoodsproject.org), 「V20 calls for more equitabl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to tackle risks posed to climate vulnerable developing countries」, 2022-04-26

• 2022. 10. 17.

V20, 부유한 국가들이 기후위기 처한 빈곤국 지원해야

기후 변화 및 에너지 위기 사태로 인해 심각한 피해 상황 및 손실을 겪고 있는 V20의 회원국들은 G20 선진국들이 전세계 온실가스의 약 80%를 배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개발도상국 및 빈곤국가에 집중되고 있음을 피력하며 부유한 국가들이 기후위기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함. 쇼나 아미나스(Shauna Aminath) 몰디브 환경장관은 2020년까지 빈곤국에 연간 1,0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선진국들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으며, 이는 선진국들이 기후 위기의 피해 상황을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함. 또한, 선진국들의 코로나 팬데믹 피해 상황과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것을 언급하며, 기후변화 피해 지원 불이행은 자금 부족이 아닌 의지의 결여라며 강력히 비판했음

자료: the Guardian (theguardian.com), 「Rich countries must urgently help poor nations hit by climate crisis, says V20」, 2022-10-17

• 2022. 10. 21.

독일 정부, 기후자금 공여 증액 결정

독일 정부는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의 손실 및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G7 국가들의 인식 제고를 이끌기 위해 UN 기후 정상 회담에 앞서 가장 높은 금액의 기후자금 공여를 약속함. 예니퍼 모르간(Jennifer Morgan) 독일 기후특사는 V20 국가들과 독일 정부가 합의한 “글로벌 쉴드(Global Shield)”는 일종의 보험 형태의 자금 지원 펀드로 ‘피해 발생 즉시’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함. 또한 세계은행에 대해서는 기후 위기를 우선시하고 개도국에게 기후위기가 갖는 의미 잘 이해하고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참고로, 독일 정부는 2015년 파리협약에 합의한 이후 기후 금융 공여금을 두 배로 확대한 바 있음

자료: Financial Times (ft.com), 「Germany steps up on climate finance and seeks overhaul of World Bank」, 2022-10-21

이슈 세부 정보

V20 발표 기후변화 피해상황(2000~2019) 주요 내용

V20 발표 기후변화 피해상황(2000~2019) 주요 내용

항목	내용
개요	- 기후변화에 취약한 V20(Vulnerable Twenty)그룹과 기후변화취약포럼(CVF) 회원국이 겪고 있는 경제적 손실
원인	- 2022년 기준 전 세계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수준에 비해 약 1°C 상승한 것으로 추정 - 이로 인한 홍수, 해수면 상승, 폭염 등의 기상 이변
상황	- 아프리카대륙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세계 배출의 3.8%에 불과 / 피해 규모는 최대규모 ※ UNECA(유엔행정부)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 국가들, 기후변화 대응 연간 GDP의 3~5%의 예산 집행 ▶ 피해 극심 지역은 15% 이상 소요 -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선진국이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기후금융을 불이행으로 인해 완화 및 적응 조치의 이행에 심각한 지장
추정 손실	- 기후변화로 인해 경제성장의 잠재력 상실로 2000-2019년 55개국 평균 GDP의 5분의 1이 상실 - 기후변화로 인한 1인당 GDP 감소폭은 아시아 -4.6%, 아프리카 -3.1%(남수단 -15.9%, 마다가스카르 -0.4%), 오세아니아 -10.2% ~ -1.1%(국가마다 차이) - 총 달러로 환산하면, 2000-2019년 기간 동안 V20 국가들 약 5,250억 달러 손실(2019년 총 GDP의 22%) - 방글라데시(19%), 필리핀(16.6%), 베트남(8.4%) 등 3개국이 전체 손실의 44%가 집중 - 대부분의 V20 국가 온도가 이미 국가별 최적 온도를 초과, 손실의 증가 빠르게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
요구 사항	-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별도의 국제 금융 필요성 강조 - 글로벌 실드(Global Shield)를 포함한 보험 메커니즘을 통해 V20의 기후 및 재해 위험에 대한 선진국과의 보상 격차(98%)를 최대한 신속하게 축소

자료: V20 (drive.google.com), 「Climate Vulnerable Economies Loss Report」, 2022

참고 문헌

□ 참고 사이트

1. Brettonwoods Project (brettonwoodsproject.org)
2. the Guardian (theguardian.com)
3. Financial Times (ft.com)
4. V20 (drive.google.com)